

평화 염원 광주 하모니 임진각에 울려 퍼진다

'광주홍사단' 30일 음악회 합창단·연주자 등 50명 참여 화해·평화와 통일 노래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임진각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하모니를 연주한다. 광주홍사단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자체 기획 공연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나라' '믿음의 나라' '약속의 나라' '평화의 나라' 등 4개 소주제로 구성된다. 공연은 소주제 '평화의 나라'에서 거리기합창단이 '넬라 판타지아' '직녀에게' '아름다운 나라' 등을 선사하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사단 거리기합창단은 시민들과 음악으로 평화통일·민주주의 등을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창단했다. 홍사단 회원,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대

남자 대학생부터 60대 주부, 교수,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연령대,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홍사단 회관(광주시 동구 수기동)에 모여 연습하고 있으며 지역 요양원 등에서 노래 봉사를 펼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통일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식, 6·10 민중항쟁 기념식 등에 참여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된 올해에는 DMZ 인근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평화통일 정신을 알리기 위해 임진각 공연을 기획했다. 송

한용(전남대 교수) 광주홍사단 상임대표는 "홍사단 정신을 광주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거리기합창단을 창립했다"며 "합창단원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등 좋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홍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홍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1965년 창립한 단체다. 민족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등을 펼치고 있으며 광주시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학교보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 해질 19:51 / 달뜨기 19:49 / 달짐 05:17

우산 가지고 다니세요
흐리고 비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 비	23/27	보성	흐리고 비	22/24
목포	흐리고 비	22/27	순천	흐리고 비	23/26
여수	흐리고 비	22/24	영광	흐리고 비	22/27
나주	흐리고 비	23/26	진도	흐리고 비	23/26
완도	흐리고 비	23/27	전주	흐림	23/28
구례	흐리고 비	22/27	군산	흐림	22/27
강진	흐리고 비	23/26	남원	흐림	23/27
해남	흐리고 비	22/26	흑산도	흐리고 비	21/26
장성	흐리고 비	22/26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앞바다	남~남서	0.5~2.0	남~남서	0.5~1.5	
먼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1.0~2.5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남~남서	1.5~2.5	남~남서	1.5~2.5	
먼바다(서)	남~남서	1.5~3.0	남~남서	1.5~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45	02:30
	19:38	14:17
여수	03:11	08:59
	14:59	21:43

◇주간 날씨

29(금)	30(토)	7/1(일)	2(월)	3(화)	4(수)	5(목)
☁	☁	☁	☁	☁	☁	☁
23/30	22/28	23/28	23/28	23/28	23/28	23/28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지외선
- 보통: 미세먼지

축농증 환자 20% '9살 이하'

어린이는 축농증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환자 5명 중 1명꼴로 9살 이하의 어린이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만성 부비동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만성 부비동염 환자는 218만명이었다. 2013년 약 206만명과 비교해 약 12만명(5.7%)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만성 부비동염 전체 진료 인원 5명 중 1명꼴(20.2%, 44만12명)은 9세 이하였다. 30대 34만4539명(15.8%), 40대 29만6951명(13.6%), 10대 28만1005명(12.9%), 50대 25만6006명(1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5·18신고센터 개소 27일 광주시청 5·18진실규명지원단 사무실에서 5·18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계몽군의 성폭력, 집단 발포경위 등 5월의 감춰진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여수·순천시 시내버스 멈춰서나

노조 오늘부터 파업 예고...극적 협상타결 가능성도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지역 4개 시의 시내버스가 28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의 막판 극적인 협상타결 가능성도 있다. 27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4개 시의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임금 인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 4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4~25일 파업 찬반투표(28일 새벽 5시)를 벌인 결과 찬성 96%로 가결됐다. 시내버스 노조와 4개 지자체는 1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4차례나 조정을 했지만 결렬됐다. 시내버스 노조는 최저 시급 7350원을 반영해 1호봉 기준 월급 290만원을 맞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 인상 폭은 여수가 11%, 목포 13.4%, 순천 15.4%, 광양은 16.4%다. 각 지자체는 27일 오후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파업에 따른 대비 방안도 마련했다. 목포시는 전세버스 115대를 투입하고 22개 노선에서 10~15개 노선으로 줄여 운행한다. 택시는 1548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전세버스 133대를 확보했으며 17개 노선이 줄어든 45개 노선에서 운행한다. 광양시도 전세버스 35대를 확보했으며 순천시는 168대를 55개 노선에 투입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월 어머니들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 도청복원 요구

청와대 앞에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촉구 집회(광주일보 6월 27일자 7면)을 열고 있는 오월 어머니들이 한병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과 면담을 했다. 전남도청복원범시민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면담에서 '오월 어머니' 회원들은 "오월 도청을 확실하게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청와대측은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월 어머니들은 지난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옛 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사발과 함께 농성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6월 모평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

국어·수학 표준점수 ↑ ...영어 1등급 반토막

이달 7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 140점, 수학 기형 145점, 수학 나형 141점이었다고 27일 밝혔다. 2018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영역이 134점, 수학 기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다. 국어와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6점, 수학 기형은 15점 높아진 셈이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국어영역의 경우 문제가 기존 틀을 벗어 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컷라인(표준점수 132점) 역시 지난해 수능보다 4점 올랐고,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 비율도 0.25%로 지난해 수능(0.61%)보다 줄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지문의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은 4.19%(2만 176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능(1등급 10.03%/ 5만2983명)과 비교하면 1등급 학생 수가 3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공립학교 올해도 임용 절벽

선발인원 808명...광주 6명 늘고 전남은 112명 줄어

내년도(2019학년도) 광주·전남 공립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총 808명으로 예고됐다. 광주 106명, 전남 702명이다. 지난해 광주 100명, 전남 814명(임용기준)과 비교하면, 광주는 6명 늘고 전남은 112명 줄어 들게 된다. 광주지역 초등교사 선발규모는 2018학년도 5명에 이어 내년도 10명으로 임용절벽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 과목과 인원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고쳤으며, 정확한 규모는 올 9월 확정공고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선발인원은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교사 10명,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2명이다. 초등교사 선발은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 학교(급) 신·증설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으나 지난해보다 5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등교사 임용 규모는 국·영·수·사·보·건·영양 등 25과목에서 84명으로 예고됐다. 유·초·중·특수 교사 합쳐 106명으로, 지난해 임용인원 100명보다 6명 늘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임용예고한 수는 유치원 교사 33명, 초등교사 303명, 특수교사(초등) 6명, 중등교사 360명 등 702명으로, 이는 지난해 814명보다 112명 줄어 든 규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택.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선택.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선택.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선택.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